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 금융위원회는 민관합동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마련
 - ① ‘30년까지 5개 정책금융기관이 총 420조원의 녹색자금 공급
 - ②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하여 ‘30년까지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증설을 위한 금융수요 160조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 ③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하여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고(3조원), 「혁신성장펀드」(5조원), 「성장사다리펀드」(1조원)와 함께 ‘30년까지 기후 기술 육성에 총 9조원 투자
- 환경부는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 마련
 - 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범위를 여신, 공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 ② 기업,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제도를 마련하고,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녹색투자 기반 마련
 - ③ 녹색채권, 여신 등 지원을 통해 '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 30조원까지 확대
 - ④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위탁거래 도입 등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통해 기업의 녹색투자 촉진

‘24.3.19(화),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환경부)을 발표하였다.

오늘 간담회가 개최된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난지 쓰레기매립지가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하면서 그 부지 위에 지어진 대표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로, 2012년에 완공된 국내 최초의 에너지자립 공공건축물이다. 바람개비 형태로 디자인되어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70% 이상 절약하고 있으며, 태양광과 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운영된다.

* Zero Energy Building(ZEB) :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4.3.19(화) 08:00, 서울에너지드림센터
- (참석자) 금융위원장(주재), 탄녹위 민간위원장, 환경부 장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은행연합회장, 5대 시중은행 은행장(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 은행장, 수출입은행 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및 성장금융 대표 등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크게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하여 '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정책금융기관도 그동안 자체채원과 기후대응기금 등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녹색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공급해 왔으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2050년으로 갈수록 더욱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매년 36조원) 대비 67% 확대(매년 60조원)해 공급하기로 하였다.

둘째, 은행권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제 규제 외에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청정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도 이를 요구하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 총 소요 자금은 약 188조원, 이 중 금융수요는 약 160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해상풍력 등의 경우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약 2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상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필요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의 모험자본 54조원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어, 이 중 일부(23조원)를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공급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에 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하였다. 1차로 1.26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6개 출자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필요시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이 때, 산업은행이 펀드별 20%만큼 출자하는 위험흡수역할을 고려하여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여 펀드 출자시 시중은행의 BIS비율 부담을 경감한다. 조성된 펀드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할 예정이다.

셋째,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기후기술은 향후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이나,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총 1.05조원(기업은행 2,625억원, 5개 시중은행 각 1,575억원)을 출자해 민간자금 1.95조원을 매칭하여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1차로 3,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6개 은행 1,260억원+ 민간 2,340억원)하고, 필요시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혁신성장펀드(5조원)와 성장사다리펀드(1조원)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우선, 금년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가칭)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을 추진하여 민간의 녹색성 판단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녹색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녹색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며,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통해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4가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첫째,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녹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저탄소 경제를 위한 전환의 방향성을 시장에 제공한다는 입장으로, 녹색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21.12월 발표, ’22.12월 개정)한 바 있다.

이를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올해는 4개 환경목표(물,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대상으로 일부 개정('24.12월)하고, 산업계, 금융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통해 3년 개정 주기에 맞춰 현장 적합성 높고 적용하기 쉬운 녹색분류체계로 지속 보완('25.12월)할 예정이다. 채권 뿐만 아니라 여신상품을 대상으로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녹색 분류체계 공시를 위한 방법론도 개발할 예정이다.

둘째,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탄소중립 관련 전문성 부족,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우려 등으로 녹색투자에 소극적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녹색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 제도를 마련한다.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지침을 발간하고,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녹색금융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의 기후위기 대응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연계하여 환경분야 산업을 분류하기 위한 체계로서, 매년 환경산업통계 조사 시 활용

셋째,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연간 3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간 2조원의 대출규모에 대해 지원한다. 이외에도 다각적인 녹색분야의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녹색수출펀드를 올해 신설한다. 또한,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영세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녹색산업 기술보증” 사업을 신설하여 녹색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으로 제3자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합리적인 배출권 가격형성과 거래량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위탁 거래를 도입하여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민간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친환경 분야에 여신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이번 대책에 참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의 준비에 은행권이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은행권은 녹색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맞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금융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사회의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금번에 출자한 펀드의 투자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분야로 그 투자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신한은행 해외 해상풍력, 그린수소 사업 등에 투자하면서 국내에도 모험자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본 건 펀드 결성을 계기로 정부 정책에 맞춰, 해당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이승열 은행장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세계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달성에 부합하고자 적극적으로 ESG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2030년까지 ESG금융 60조원 달성 및 관련 산업의 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금융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은 “우리나라가 저탄소 국가로 전환할 근간이 되는 에너지 분야에 금융기관으로서 더 큰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나라가 기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은행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이석용 은행장은 “농협은행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녹색 금융에 12조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합동 금융지원 방안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도 기업의 저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확대, 기후기술 육성 등을 위한 녹색금융 공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은 “산업은행은 녹색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기후기술 육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녹색산업의 육성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수출입은행 윤희성 은행장은 “녹색전환을 위한 국내외 자금수요에 대하여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펼치는 한편,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서 2030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등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은 “수출·중소기업 녹색전환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녹색대출 공급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혁신적인 기후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기후기술 분야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최원목 이사장은 “녹색 공정전환 보증 도입, 녹색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등 녹색금융 지원체계를 다각화한 만큼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 중립이라는 新 경제질서 내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 김종호 이사장은 “이번 공급규모 확대에 더하여, 탄소가치 평가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통해 기후테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녹색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이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대책이 정부-정책금융기관-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마를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하며, 은행이 지난 ‘수출기업 지원대책’(23.8월)과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24.2월)에 이어, 이번에 미래에너지펀드 등에도 출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였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급성장하는 미래 녹색시장 선점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탄소중립을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천문학적 규모로 커지고 있는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번 대책과 같이 민·관을 아우르는 범국가적 녹색투자 활성화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가하였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녹색시장이 팽창 중”이라며, “민간 녹색투자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저탄소 체계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정책 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에 녹색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 [별첨]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금융위)
2.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 (환경부)
3.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4. 환경부 장관 모두말씀

담당 부서 < 총괄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장	남동우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안기빈 (02-2100-2864)
< 공동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책임자	과장	김경석 (044-201-6701)
		담당자	사무관	최진성 (044-201-6706)
< 공동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경제조정국	책임자	팀장	박혜수 (044-200-1957)
		담당자	전문위원	김정수 (044-200-1979)
< 공동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책임자	국장	정우현 (02-3145-2080)
		담당자	팀장	명기영 (02-3145-8060)
< 공동 >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책임자	국장	이진 (02-3145-8170)
		담당자	팀장	김정일 (02-3145-8190)
< 공동 >	은행연합회 미래혁신부	책임자	부장	김윤진 (02-3705-5326)
		담당자	팀장	유미라 (02-3705-5395)
< 공동 >	한국산업은행 PF2실	책임자	실장	안옥상 (02-787-5661)
		담당자	팀장	윤희진 (02-787-5671)
< 공동 >	중소기업은행 ESG경영부	책임자	부장	유인식 (02-2031-3434)
		담당자	팀장	박상민 (02-6322-5044)
< 공동 >	한국수출입은행 ESG경영부	책임자	부장	김재화 (02-6255-5121)
		담당자	팀장	김영선 (02-6255-5122)
< 공동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책임자	부장	정현호 (053-430-4331)
		담당자	센터장	윤보현 (053-430-4334)
< 공동 >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금융부	책임자	부장	박경순 (051-606-7550)
		담당자	팀장	김종현 (051-606-7306)
< 공동 >	한국성장금융 혁신금융실	책임자	실장	장철영 (02-2090-9120)
		담당자	팀장	김동현 (02-2090-9139)
< 공동 >	국민은행 ESG상생금융부	책임자	부장	이인규 (02-2073-8191)
		담당자	팀장	최창순 (02-2073-0910)
< 공동 >	신한은행 프로젝트금융부	책임자	부장	배두환 (02-2151-4810)
		담당자	팀장	박성흠 (02-2151-4189)
< 공동 >	하나은행 지분투자부·프로젝트금융부	책임자	부장	송정호 (02-729-8637)
		담당자	팀장	최재영 (02-729-8657)
< 공동 >	우리은행 인프라금융부	책임자	부장	김영종 (02-2002-3974)
		담당자	팀장	왕제연 (02-2002-3855)
< 공동 >	농협은행 프로젝트금융부	책임자	부장	이상대 (02-2080-3871)
		담당자	팀장	주윤상 (02-2080-3874)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